Q1.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1번의 실패와 1번의 성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집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도전하는 집념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도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들은 부정적 요인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거름이라고 생각하며 실패를 발판으로 성공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1년간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제안서 작성은 처음 경험해보았기에 초기에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입찰 탈락을 11번이나 경험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입찰에 성공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탈락했던 제안서들을 복기하며 원인을 분석하였고, 제안에 대한 상황 및 환경분석이 부족하여 제안사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입찰제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KAIST에서 주관하는 '2017 가상현실 기반의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KAIST가 이 입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저한 상황분석 결과 KAIST는 실제로 20~30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시행했었고, 따라서 다수의 수강생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을 콘텐츠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제안서에 삽입하고였고, 그 결과 입찰 통과라는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은 목표를 향한 집념 정신을 더욱 강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과정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때도 있겠지만, 목표를 향한 집념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강한 집념을 바탕으로 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 앞의 추상적인 부분을 축소하고, KAIST 제안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 또한 조금 말이 되게 작성할 것.

Q2.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현대자동차의 미래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저의 강점은 새로 배우는 것에 망설임이 없고, 빠르게 습득하여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대외활동과 전공 수업을 통하여 VR, IoT,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나갈 때마다 몰랐던 것에 대해 깨우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움 자체가 재미있다 보니 수상이나 최고학점이라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능력을 현업에서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습득 능력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변화하는 현대자동차]

포니로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업계에서 후발주자였기에 앞선 기술을 빠르게 따라하는 'Fast Follower'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출시하는 등 기술의 변화를 주도하는 'First Mover'의 위치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CES2017에서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고, 서버형 음성인식 솔루션과 같은 최신 IT 기술들을 차량에 접목시키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생활공간이 되도록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자동차는 미래 '커넥티드 라이프'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수한 변화가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 변화들에 빠르게 대처하여, First Mover로의 발전을 주도하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 2번째 문단과 1번째 문단을 변경하여 내용을 매끄럽게 구성.

Q3.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신기술로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제작했을 때의 보람]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통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재의 것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술을 통해 지금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제안하고 실제로 이루어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인 'IT전략'부서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IT 기술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Optitrack이라는 공간 및 모션 트래킹 기술과 5G를 체험하였습니다. 해당 기술들은 국내에 사례가 많이 없거나 상용화되지 않았기에 한계점과 활용성을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IT 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CES', 'MWC', 'IFA'와 같은 국제 전시나 'F8',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의 IT기업 컨퍼런스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하는 'KVRF', 'VR EXPO'에도 참가하여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이 같은 경험과 노력은 급변하는 IT 기술 속에서 기술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Insight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데이터들 중 구간별 버스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통해 구간별 혼잡도 및 교통체증 정도를 알아냈습니다. 또한 승하차시 카드를 찍지 않는 인원비율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하차 카드 계산 도우미 앱’을 제시하였고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IT 전략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2가지의 능력들을 발휘하여 기존의 현대자동차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 경험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왜 적합한지를 좀 더 강조할 것. 임팩트가 부족하다.